

26년 4월 목회일정

| | |
|---------|---------------------------|
| 5일(주일) | 부활주일(3일-정사일 / 금요기도회) |
| 19일(주일) | 성찬가족심방 |
| 26일(주일) | 연합예배(with 김해개혁장로교회-본 교회당) |
| 14일(화) | 부산중부노회 정기노회(거제교회당) |
| 16일(목) | 동래시찰 연합당회 |
| 20-21일 | 고시부 세미나 |
| 28일(화) | 동래시찰교역자회(뉴웨이브교회당) |
| 12일(주일) | 금정교회 협조당회 |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피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성찬교구조정** / 주보 7면참고하세요
- 설교요약발표** / 김선우 어린이(다음 주 - 김성윤 학생)
- 긴급지원현금** / 오늘 강인중 목사(파서교회)의 치료를 위한 구제현금이 있습니다. 주일현금 시에 하시면 됩니다.
- 성찬가족심방** /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1조 - 김경이 가정, 2조 - 고충석 가정
- 연합예배** / 다음 주일 김해개혁장로교회와의 연합예배가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오후 / 말씀봉사 - 신득일 목사(고신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 교회이름** / 이경준 집사 가정(최현미 이은수 이은우) - 부산동부노회 남천교회로, 석별의 정을 나누세요.
- 목사동정** 1) 노회고시부 세미나 : 20일(월)-21일(화) 경남 하동
2) 양주동목사 일시 귀국 - 4월23일(목) 저녁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 | | |
|-------|-------|------------|
| 주일예배 | 오전 | 11:00 |
| | 오후 | 15:00 |
| 주간기도회 | 아침기도 | 06:00(월-금) |
| | 수요기도회 | 10:00 |
| | 금요기도회 | 21:00 |
| | 지역기도회 | 각지역결정 |
| 교회학교 | 유/SFC | 주 13:00 |
| | 교회알기 | 주 13:30 |
| | 청년회 | 주 14:00 |
| | 새신자반 | 주 13:10 |

이 달의 봉사자

| | 4월 | 5월 |
|------|-----|-----|
| 교회소식 | 고충석 | 고충석 |
| 봉 헌 | 김용대 | 김영민 |
| 안 내 | 조완식 | 노주혜 |

평균케 하는 원리

| | |
|----|-----------------|
| 후원 |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
| | 파서교회(고신,강인중) |
| 선교 |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
| |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
| 구제 | 곡성연화교회(최지혁) |
| |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
| 장학 | 양주동목사(화란 위트레흐트) |
| | 고려신학대학원(기동원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 유학목사 / 양주동
- 강도사 / 이광원
- 시무장로 / 고충석
- 휴무장로 / 김영민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6.04.19.(제30-16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11시

인도 이광원 강도사
설교 이광원 강도사

교회소식

개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 예배에로의부름 ↑ 시118:19-20(교송)

인도자: 내게 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회 중: 이는 여호와와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이다

* 축복의인사 ↓ 엡1:2

* 경배찬송 ↑ 찬송4장(1-2)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신5장(주계명/교독)

* 죄의공적고백 ↑ 제 7형

* 용서이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103편(5-6)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롬 4:1-25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32편(1-2)

설교 ↓ 설교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3장 구제현금 분병 분잔

목회의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사를 위한 헌금 ↑ 다같이

폐회

* 마침찬송 ↑ 찬송24장(6a-7a)

* 강복선언 ↓ 최목사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 | | | | | | | | | | | | | | | | |
|---|--|---|-----|------|---|------|---|----------|---|-----------|---|-----------|---|------------|---|--------|
| <p>성찬가족심방</p> <p>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찬202장(1-3) 기 도 성찬조원 중 성 경 봉 독 딤후 3:16-17 말 씀 선 포 함께 읽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함께 성경 공부하기</p> <p>목 적 헌 금 구제목적 찬 송 찬202장(4-5) 주 기 도 문 다같이</p> <p>성찬가정심방</p> <p>1. 진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심식사는 교회가 준비한 컵라면을 가져갑니다. 2) 심방가정에서 간단하게 식사와 교제를 나눈 후 시작합니다. 3) 심방가정에 공적심방 외의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p>2. 성찬가족심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방기도회는 조장이 기도회 순서를 따라 진행합니다. 2) 드러진 [구제목적헌금]은 조장이 재정부에 전달합니다. 3) 심방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다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4) 먼저 당회가 제공하는 공적인 나눔으로 나눕니다. 5) 공적 나눔 이후에는 조장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6) 심방가정과 참석자들의 상황과 가정별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p>3. 정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치고 흠여질 때는 조장의 기도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2) 마친 후 성찬보고서는 작성하여 성찬조장 단독에 올립니다. 3) 주일 20시 영상으로 진행되는 성찬조장 모임에서 그 날 기도회와 심방과 교제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 <p>사 회 각 성찬 조장 나눔글 클라리온 번역글</p> | <p>주간기도회</p> <p>아침기도회 월~금 06시(교회밴드) 인도 : 최성림 목사</p> <p>수요기도회 수요일 0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p> <p>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찬송 : 고충석 장로 말씀 : 최성림 목사</p> <p>주간성경읽기</p> <table border="1"> <tr><td>주 일</td><td>수 5장</td></tr> <tr><td>월</td><td>수 6장</td></tr> <tr><td>화</td><td>수 7:1-15</td></tr> <tr><td>수</td><td>수 7:16-26</td></tr> <tr><td>목</td><td>행 9:23-43</td></tr> <tr><td>금</td><td>행 10:1-23a</td></tr> <tr><td>토</td><td>주일설교본문</td></tr> </table> <p>[주일 밤상기도회] 주일저녁에 모여 함께 나누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였을까? 2.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된 은혜가 있으면 얘기해 줄래? 3. 오늘 교회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뭘까? 4. 오늘 내가 기억하고 기도해 주고 싶은 성도(친구)가 있나? | 주 일 | 수 5장 | 월 | 수 6장 | 화 | 수 7:1-15 | 수 | 수 7:16-26 | 목 | 행 9:23-43 | 금 | 행 10:1-23a | 토 | 주일설교본문 |
| 주 일 | 수 5장 | | | | | | | | | | | | | | | |
| 월 | 수 6장 | | | | | | | | | | | | | | | |
| 화 | 수 7:1-15 | | | | | | | | | | | | | | | |
| 수 | 수 7:16-26 | | | | | | | | | | | | | | | |
| 목 | 행 9:23-43 | | | | | | | | | | | | | | | |
| 금 | 행 10:1-23a | | | | | | | | | | | | | | | |
| 토 | 주일설교본문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교회와 복음을 위한 기도</p> <p>주일설교를 기억하며(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유일한 자량이 되도록 2.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3. 주의 말씀이 교회를 하나되게 한 것처럼, 하나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p>고려신학대학원(원장 : 기동연교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학생들이 수업에 충실히 임하여 학업과 사역을 감당할 소명을 잘 다지게 2. 교수들이 신앙과 신학을 겸비한 신실한 목회자들을 계속 배출해 내도록 3. 고신교회의 진리파수의 요새가 되어 교회를 진리의 터위에 견고히 세워가게 <p>고려학원을 위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신대학교가 하나님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2. 복음병원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게 3. 고려학원이 고신교회의 공적신학을 나타내 세상에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게 <p>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위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편교회의 신앙으로 믿음의 일치에 이룸여 연합할 교회들을 많이 만나게 2. 고신교회가 개혁신학에 기초한 말씀관과 예배관, 직분관을 바르게 세우도록 3. 노회 산하 교회들이 동일한 신앙과 질서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가게 | <p style="text-align: center;">성도를 위한 기도</p> <p>당회를 위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상 깨어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며, 교회 안에 허탄한 가르침과 이설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견고히 세워가도록 2. 가르치는 장로된 목사가 주의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살피고 찾아 나눌 수 있는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3. 처리하는 장로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성도를 심방하고 바르게 인도하며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 | | | | | | | | | | | | | | |

몸의 등불, 눈

주님은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히면 세상이 밝아지고 등불이 꺼지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눈을 뜨면 환해지고, 눈을 감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눈을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등불이 아니라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몸의 등불로서 눈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등불이 바깥세상을 밝히듯이 몸의 등불인 눈은 자기 자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원래 어두움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둠(흑암)으로 가득할 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빛이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성령)를 불어 넣으시고, 언약(성자)을 맺으셨습니다. 성한 눈으로 온 몸이 빛을 볼 수 있는 밝은 상태로 지음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그 눈이 뱀의 유혹에 가려질 때에 상하여 어두워졌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사방이 어두워지듯이, 몸의 등불인 눈이 상하면 빛이 가려져 몸이 어두워집니다. 몸의 등불인 눈에 불빛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빛이 사라지면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십니다. 눈이 병들어 있으면, 빛이 없음으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이 상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는 그 사람의 몸의 등불인 눈이 나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된 성도의 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바깥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밝은 빛을 내고 있습니까? 다른 불순한 것들이 우리 몸의 등불인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만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등불의 빛이 참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성찬교구

| | | |
|-----------|--|--------------------|
| | 교구장 : 최성림 목사 | 조장 : 김낙형 집사 |
| I | 김낙형 강정희 김영덕 김경이 이영서 김영민 노주혜 김용대 문경실 김유니 김요림 이광원 이근영 최예지 김성윤 김성재(방준범) | |
| | 교구장 : 고충석 장로 | 조장 : 구성본 집사 |
| II | 고충석 김명순 김영규 박중순 박지영 조안나 구성본 김학희 김민혁 이하나 조완식 최진언 고태은 고주는 고서은 구하영 김유안(구주희) | |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6년04월19일 주일오전]

| |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찬545장 |
| 성경봉독 | 롬 4:1-25 |
| 설 교 |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
| 기 도 | 부 모 |
| 주기도문 | 다 같이 |

주제: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 집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완벽한 본보기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이 원리가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까? (1~8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독보적인 신앙의 표준이었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까지 예외없이 순종하여 온전한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도 조상처럼 철저히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오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순종의 모범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바울은 창15:6을 가져와 아브라함이 믿음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선포합니다. 이 단어는 계산을 끝마쳤고 값을 다 치렀다는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르신 대속의 은혜와 의의 전가를 설명합니다. 믿음 자체가 도덕적 공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빛을 지는 샘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가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불의한 자를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다윗 역시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을 노래했으며, 이는 모두 행함이 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은혜가 죄를 덮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원리입니다.

2.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9~12절)

이 질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었던 할례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가르쳤고, 할례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필수 관문이자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확실한 구원의 표지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시간적 순서를 근거로 이를 철저히 반박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인 명백한 무할례 시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칭의를 얻어내는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겉으로 입증하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마친 학업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졸업식의 졸업장과 정확히 같습니다. 믿음으로

목요일(사도행전 9:23-43)

1.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 제자들은 그를 어떻게 성에서 탈출시켰나요?(23-25)
2.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29-30)
3. "그리하여 온 ()와 ()와 ()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과 성령의 ()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31)
4. 베드로가 룻다에서 만나 고쳐준 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32-35)
5.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울며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나요?(39)
6. 다비다가 살아난 후 베드로는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나요?(43)

금요일(사도행전10: 1-23a)

1. 사도행전 기자는 이탈리아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을 어떻게 소개하나요?(1-2)
2.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부른 사람들 중 부하 한 명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나요?(7)
3.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언제이며,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언제인가요?(3,9)
4.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은 무엇과 같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11-12)
5.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옴바로 보낸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19, 참,7&각주)
6.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고넬료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나요?(22)

토요일(복습하기)

- 수5장에서 요단을 건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시어 애굽의 수치를 씻게 하십니다(길갈). 유월절을 지키고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밭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으며,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깨닫습니다. · 수6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옛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외칩니다. 그 순종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하되, 약속대로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재건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 수7장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훔친 범죄로 이스라엘은 아이 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여호수아의 간구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리시고 제비뽑기로 아간을 찾아내십니다. 아간과 그의 소유가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 행9:23-43에서 사울은 유대인의 음모를 피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며 전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다소로 보내 집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에네아를 고치고 옴바에서 다비다를 살려 많은 이를 믿게 합니다. · 행10:1-23a에서는 베드로가 옴바의 무두장이(가죽만드는 사람)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었고, 베드로 역시 보자기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고넬료의 사절단을 맞아들입니다. 고넬료의 부하는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그리하여 온 ()와 ()와 ()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과 성령의 ()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사도행전9:31)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5~17)

함께 성경 공부하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Jack Moesker(캐나다개척교회, 명예목사)

Clarion Vol.65 No.11 JUNE 3 2016

이러한 권면은 행 17장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북부의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11v을 보면 그때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레아의 새로운 성도들처럼 매일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자세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곧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격주로 저녁에 시간을 내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또는 다른 취미 활동을 잠시 멈추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1. 각자의 성경공부 모임에 대한 추억을 나눠봐요.(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등...)
2. 나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나요?(좀 더 깊이 있는 개인성경 공부를 위한 방법나누기)
3. 내가 성경연구 모임에 참여하기 힘들게 만드는 핑계가 있나요? 극복할 방법은 있나요?
4.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때 함께 고민할 신앙의 동료는 있나요?
5. 성경공부 모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본적이 있나요?
6. 최근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말씀에 비추어 수정되거나 바로 잡힌 경험이 있나요?
7. 모임 안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거나 누군가 침묵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보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8. 베뢰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 어떻게 해보고 싶은가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 성경공부 모임이 흔했고 참석률도 높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성경공부 모임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와 장로들, 그리고 청년들 모두 참여를 기대했죠. 물론 모든 모임이 다 유익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장난치는 분위기였죠. 어느 주일 저녁에는 너무 심한 장난으로 나의 이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성경의 일부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때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그럴 때는 본문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정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핑계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에서는 성경공부모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방문 때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는지 물어 보면 부정적인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가냐고요? 너무 바쁘다거나, 얻는 게 없다거나, 사람들이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게 싫다거나,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는 식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혼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성경 공부는 좋은 것입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원하는 성경이나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어리석은 말이나 질문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참석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성경 공부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이유는 많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만 고집할 이유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를 내세우며 개인 성경 공부를 고집하는 사람들 중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그다지 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식탁에서나 자기 전에 잠깐 읽는 정도일 겁니다. 그것을 진정한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 공부란 성경 구절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고 주석이나 성경 안내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당신도 성경 본문에 대해 질문을 갖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로 인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의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완전히 틀린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은 많은 유익과 장점이 있습니다. 1) 우선, 한 주간 동안 내가 배운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의 자람(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굳건한 확신)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배경과 당하는 일이 다르고 배우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배우게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의견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는 말씀처럼 서로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굳건한 확신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거나 성경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이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유익들도 생각해 봅시다.

성경 공부를 통한 책임감

성경 연구 모임이나 그룹에 참여하는 2) 또 다른 유익은 정기적인 성경 공부를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성경 공부는 유익합니다. 그 점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성경 공부 시간을 내지 않는 데에는 항상 변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전 4:9-10v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움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은 성경공부모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게시판에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의 날짜와 시간을 공지해주는 리더가 있다면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것

을 장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이나 신앙고백서 등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정기적인 모임 참석을 장려하여, 모임 중에 논의되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믿음을 명확히 표현하고 바로잡는 법 배우기

3) 그룹 성경 공부의 세 번째 유익은 자신의 믿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듣고, 이를 통해 그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나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벰전 3:15v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 믿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그룹 성경 공부의 또 다른 유익은 나의 생각하고 있던 바들이 검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구절이나 성경 교리, 또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엡5:10v에 쓴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볼 수 있고” 또, 살전5:21v에 쓴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발전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익 중의 하나는 그룹 성경 공부는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공부를 하는 가운데 서로를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의견뿐 아니라 어려움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고전12:12-31절에 명시된 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손과 발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떤 자매가 항상 토론을 주도하는 것이, 또는 어떤 형제의 생각을 거의 듣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서로의 상황과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입니다. 행2:42v에 묘사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에게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본문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끈기 있게 노력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함께 실천할지 고민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